

# 韓銀 “물가 상한선 넘길 확률 34%”

3.5% 상회 예측 보고... 고물가·고유가 영향  
“미 경기침체·원자재값 상승 불확실성 여전”

앞으로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증가 물가안정목표 범위의 상한선인 3.5%를 웃돌 확률이 34%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증가 물가안정목표 범위인 3.0±0.5%에 머무를 확률은 58%로 평가돼 목표범위 내에서 안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난 달 31일 발간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올해 물가와 고유가의 영향 등으로 목표 범위의 중심선을 웃도는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수요 측면에서는 그동안의 경기 상승

에 따른 수요 압력이 가시화되고 비용 측면에서도 국제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다만 하반기 들어 미국 등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으로 물가 오름세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인플레이션 경로를 팬 차트(fan chart)를 통해 분석해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0±0.5%에 머무를 확률은 58%, 상

한을 웃돌 확률은 34%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경로를 팬 차트를 통해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이 4.0% 이상 5.0% 미만일 확률은 48%, 5.0% 이상일 확률은 34%, 4.0% 미만일 확률은 18%로 나타났다.  
한은은 “올해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내수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미국 경기의 부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 등으로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상장사 작년 배당금 14조 광주·전남 업체 4% 감소

지난해 코스피시장 상장사의 배당금 총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14조원에 달했지만 광주·전남지역 상장사들의 배당금은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정기 주주총회를 실시한 12월 결산 608개사 가운데 현금배당을 실시한 450개사의 지난해 배당금 총액은 13조39천 2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역 상장사들의 배당금은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광주·전남 24개(코스닥 포함) 12월 결산 상장사 가운데 현금배당을 결정한 12개사의 배당금은 594억원으로 2006년보다 4% 줄었다.  
상장사별 현금배당액이 27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호타이어(113억원) ▲조선내화(57억원) ▲한국화인케미칼(49억원) 등의 순이었다. 코스닥 법인은 부국철강과 와이엔텍이 각각 15억원, 4억원을 배당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인천공항 '기업인라운지' 개장

지난달 31일 인천공항 '기업인라운지' 개장식에서 인천공항사 직원들이 라운지 이용모습을 시연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우선 선정된 기업인 400명은 1일부터 이 라운지를 이용하게 된다. /연합뉴스

## ‘먹거리 공포’에 “수입산 먹겠다” 수입 브랜드 매출액 17%↑

국내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수입식품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과자·빵·참치캔 등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국내 식품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아지면서 수입식품의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GS25는 ‘노래방 새우깡’ 파동이 일어난 다음날인 지난 달 1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2천 950개 매장의 과자매출을 분석한 결과 수입 브랜드 과자매출이 과동 이전보다 17.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31일 밝혔다. 같은 기간 국내 브랜드 과자는 2.3% 신장하는 데 그쳤다.  
이런 현상은 수입 아이스크림과 수입 맥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과동 이전보다 수입 아이스크림 매출은 15.5%, 수입 맥주는 6.2% 늘어났다. 반면 국내 아이스크림 매출은 0.8% 신장에 그쳤고, 국산 맥주는 오히려 0.2% 하락했다.  
GS25는 이에 대해 “국내 제조업체들의 식품에서 이물질이 계속 발견되자 좀 더 안전한 먹거리를 찾으려는 소비자들이 수입 식품 쪽으로 눈길을 돌렸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수입식품 뿐 아니라 프리미엄 식품 매출도 덩달아 증가했다. 베니건스 스낵과티 매출은 과동 이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고 라면도 일반 라면보다 가격이 비싼 프리미엄 라면인 틈새라면, 공화춘, 황태라면 매출이 10.1% 신장했다. 빵 매출도 베이커리 상품은 16.0%나 늘었다. /연합뉴스

## 주택대출 금리 3주 연속 급등 가계이자 ‘눈덩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주 연속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시장금리 상승세를 반영해 신용대출 금리도 인상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예금금리 인상에는 공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달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번주 초 변동금리형 주택대출 금리를 연 6.67~7.37%로 고시하며 지

난 주초에 비해 0.07%포인트 인상했다. 지난 10일에 비해서는 3주간 0.20%포인트 급등했다.  
3주전 하나은행에서 2억원을 빌렸다면 연간 이자부담이 40만원 늘어나게 된다.  
국민은행은 전주보다 0.09% 인상을 6.02~7.62%로 고시해 최저 금리가 지난 달 11일 이후 한달 반만에 6%대로 복귀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6.26~7.76%와 6.36~7.76%로 각각 지난 주초보다 0.08%포인트 인상했으며 외환은행은 6.19~7.37%로 0.02%포인트 올렸다.  
양도성에금증서(CD) 금리가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면서 변동금리형 주택대출 금리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금융채 3년물 금리에 연동되는 3년 고정형 주택대출의 경우 대부분 은행이 4주간 0.35~0.45%포인트 인상을 했다.  
일부 은행은 주택대출 금리와 함께 신용대출 금리도 인상을 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7일 국책은행 기금기저금 6개월 변동형의 기준금리를 6.25%로 0.10%포인트 인상하고 1년 변동형은 0.20%포인트, 2년~5년 변동형은 0.35%포인트 인상을 했다. /연합뉴스

## 골프 접대비 2년간 10억5천만원 써 금감원, 거래소 곧 징계

금융감독원이 작년 말 종합감사 결과 골프접대비 등의 경비지출이 과도한 것으로 적발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해 조만간 징계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금감원은 작년 11월 중 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한 정례 종합감사를 실시해 업무추진비 등의 일부 경비가 과도하게 지출된 점을 확인했다며 이날 중순쯤 징계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금감원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말 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한 금감원 감사 결과 2006~2007년까지 2년간 업무추진비와 정보수집비가 다른 항목에 비해 지나치게 많았으며 한 번에 금액이 집행된 적도 많았다고 드러났다. 특히 2006년 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9개월간 10억5천만원을 골프접대비로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항목별로 봤을 때 이익 등에 비해 업무추진비 등이 과도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한꺼번에 금액이 집행된 사례도 있었다”며 “그간 금감원장이 공식이어서 조치를 내리지 못했으나 이날 중순쯤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무추진비와 정보수집비가 다른 항목에 비해 지나치게 많았으며 한 번에 금액이 집행된 적도 많았다고 드러났다. 특히 2006년 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9개월간 10억5천만원을 골프접대비로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항목별로 봤을 때 이익 등에 비해 업무추진비 등이 과도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한꺼번에 금액이 집행된 사례도 있었다”며 “그간 금감원장이 공식이어서 조치를 내리지 못했으나 이날 중순쯤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금호생명	금호생명 직영 광주TM지점 상담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3800~4000	04/01	062-360-5201
R노트	컴퓨터관련 하드웨어 리퍼어센트 직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02	062-523-6658
㈜금호모터스	자동차검사사 자격(자동차검사사산업기사 기능사)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4/04	062-672-2744
㈜문화상사	거래처관리 운전배달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4/05	062-526-1100
㈜청산뉴미디어	PC활용 작업(엑셀,PPT,한글)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4/05	062-364-0031
㈜한일고속	[광주]고속버스 운전원 경력직 모집	고졸/경력2년	2800~3000	04/07	02-535-2101
남해철강	품질관리팀 정규직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07	062-943-8676
㈜아인스프린	[삼성광주전자 협력업체]사무직 여사원모집	고졸/경력1년	1600~1800	04/07	062-973-5616
서광이엔지	광주신세계 전기직 모집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04/08	062-524-1127
(제)21세기경제연구소	연구원(원기계산 및 시스템운영)모집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4/08	062-225-0825
신일가스	영업관리 사무원 채용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4/08	062-951-0011
㈜시영이트	포장디자인모집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4/10	062-953-9784
㈜남광주 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 동광주영업소 영업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0	062-233-2311
경덕토건	현장조경 모집이다.	초대졸/경력5년	2000~2200	05/10	062-681-5204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 ■ 금융위 업무보고 뭉 달았다

# ‘시장 중심’... 금융규제 확 푼다

하반기부터 ‘금산분리’ 단계적 완화

산업자본 은행지분 소유한도 10%로

렌터카·정비업체 보유 보험지주사도

올 하반기부터 산업자본이 출자한 사모펀드(PEF)나 연기금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또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4%에서 10%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렌터카업체나 정비업체 등을 자회사로 거느리며 자동차보험과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보험지주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의 신성장 동력 산업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자본의 은행인수를 막는 현행 금산분리 제도가 3단계에 걸쳐 완화되며 우선 1단계로 PEF와 연기금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현재 PEF의 경우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출자 비율이 10% 이하여야 금융자본으로 인정되는데 이를 15% 또는 2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PEF에 대한 산업자본의 출자 비율이 10%를 넘어도 금융자본으로 간주돼 은행법상 4%로 제한된 은행 지분(의결권 기준)의 소유 한도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기업들이 PEF를 통해 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되지만 PEF의 의사 결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재무투자자 LP이기 때문에 은행 경영권 행사에는 제약이 받게 된다. 또 산업자본인자들

농고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금융자본으로 인정받아 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2단계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한도를 10% 정도로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소유 규제를 없애면서 대주주 자력심사와 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보험이나 증권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비금융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다만 비금융 자회사와 금융 자회사 간의 순환출자나 상호출자에 따른 자금회로를 막기 위해 비은행지주회사는 이 같은 출자구조를 해소해야 하고 중요한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된다.

산업은행은 대우증권 등 자회사를 묶어 연말까지 지주회사로 전환해 내년부터 2012년까지 지분 49%를 매각한 뒤 완전한 민영화 추진된다.

산은지주회사 최고경영자(CEO)로 외국인인을 포함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물이 영입되며 내년엔 산은지주회사의 매각이 시작되면 그 대금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한국투자펀드(KIF)가 설립된다.

4월 말까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연내에 국내외 금융회사의 본거지가 되는 금융중심지를 지정하고 이곳에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이 추진된다.

금융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9월 말까지 구성되고 양질의 민간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정부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연합뉴스

##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상위 10%

# 연간 소득 1억 첫 돌파

전체 평균의 2.4배... 하위직의 9배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 중 소득 상위 10% 가구의 연간 소득이 사상 처음 1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의 2.4배, 하위 10% 가구의 9배에 달하는 것으로 이들 고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는 주로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 중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888만3천원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1억659만원에 달했다.

10분위 가구의 연소득이 1억원을 돌파한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9년 이후 처음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는 가구주가 임금근로자로 도시에 사는 2인 이상 가구를 말하고 가구소득에는 비종이 가장 큰 근로소득과 사업,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

도시근로자 가구 중 10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00년 605만3천원, 2001년 665만4천원, 2002년 686만8천원, 2003년 698만6천원, 2004



년 735만8천원, 2005년 773만6천원, 2006년 816만4천원, 2007년 888만3천원 등 7년 동안 46.7% 증가했다.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2000년 7천264만원, 2001년 7천985만원, 2002년 8천242만원, 2003년 8천383만원, 2004년 8천829만원, 2005년 9천 283만원, 2006년 9천797만, 2007년 1억659만원이다. /연합뉴스

## ‘규제 전봇대’ 뿌리 뽑을 전담팀 뜬다

대한商議 규제개혁 추진단 발족

금융·서비스·세제 등 집중 점검

‘규제 전봇대’를 뿌리뽑을 민관합동의 전담조직이 가동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필요한 현장조사와 대안마련 등의 업무를 전담할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해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김성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이성구 국가경쟁력강화위 규제총괄단장 등 2명의 공동단장 아래 총괄조정팀, 규제점검1

팀, 규제점검2팀 등 3개팀을 갖추고 있으며 본부는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 두게 된다.

규제점검1팀은 금융·물류·관광·서비스·제조업 등 산업별 규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내놓는 업무를 담당하며 규제점검2팀은 세제·입지·노동·환경·경쟁정책 등 제도적 측면의 분석 및 대안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추진단 인력은 대한상의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국가경쟁력강화위 담당 공무원과 경제단체, 연구소 등의 전문가들도 가세할 예정이다. 전체 인력은 20명 정도가 될 전망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설명했다.

추진단은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속에 개혁돼야 할 규제를 현장 중심으로 발굴,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며 규제개혁의 성과를 수요자 입장에서 측정, 평가하게 된다. /연합뉴스